

시끼보의 의료 섬유 사업 - 2006년도 상반기는 증수증익

시끼보의 의료 섬유(衣料纖維) 사업은 2006년도 상반기에 2005년 동기와 비교하여 증수증익(增收增益)이 되었다. 제품 사업이 커지고, 공장의 조업률(操業率)이 오른 데 따른 것으로, 섬유 부문에서는 새로운 상류(商流 ; 商品의 흐름)가 생김으로써, 줄고만 있던 기초(基調)에 제동(制動)이 걸렸다고 말하였다.

2006년도 상반기에는 종래(從來) 방식의 텍스타일 판매는 줄었는데, 니트, 침장이 모두 제품 판매가 커졌다. 상하이 시끼보 복식(上海敷紡服飾)에서는 재봉기 100대를 증설하는 등 앞으로도 제품화를 추진할 방침이다. 또한 직물은 중점 방침의 하나인 캐주얼화를 추진하였다. 2005년기의 캐주얼 비율은 약 10%였는데, 2006년 상반기에는 약 25%로 올랐다. 2006년기부터 시작한 중기 3개년 계획 내에 50%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. 공장에서는 시끼보 고오찌(高知)를 해산한 것도 있어, 도야마(富山) 공장의 조업이 올라갔다. 시끼보 고오난(江南)도 2005년에 사염(絲染)을 외주(外注)로 하는 등 일부 설비를 축소함으로써 고정비(固定費)나 로스(loss)를 압축하여 증익(增益)의 성과를 올렸다. 직물의 캐주얼화가 추진된 것도 염색 가공 요금의 단가(單價)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.

한편 염색 가공은 연료(燃料) 값이 오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, 시끼보 고오난(江南)에서는 생(省)

에너지를 위하여 폐열회수(廢熱回收)를 중심으로 설비에 투자하였다. 2006년 상반기 중에 도입을 끝내고 2006년 하반기에는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

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한 인도네시아의 멜텍스에서도 2006년 중에 보일러의 연료를 가스에서 석탄으로 바꾸는 투자를 할 예정이다. ♣